

연예종합

여기는 칸



20일 영화 '시'의 칸 국제영화제 공식상영회에 참석한 감독과 배우들이 관객의 뜨거운 호응에 손을 흔들어 답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동 감독, 윤정희, 이다윗, 이준동 파인하우스필름대표. 칸(프랑스) | AP연합뉴스

‘시’, 황금종려상 후보 급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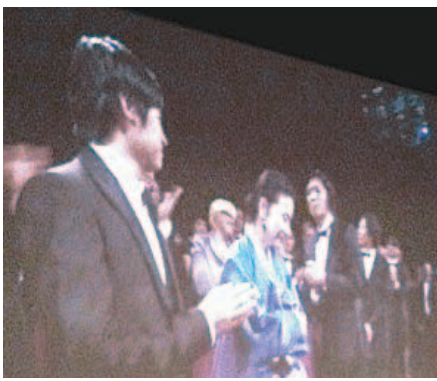
“슬프고도 감동적인 훌륭한 작품
윤정희의 관록있는 연기 인상적”
공식 상영회후 언론 호평 쏟아져

칸(프랑스) |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하녀’에 이어 ‘시’도 제63회 칸 영화제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식 경쟁부문에 출품된 ‘시’는 20일 공식 상영회를 가진 후 비교적 높은 평점과 호평이 쏟아지면서, 최고평점을 기록중인 마이크 리 감독의 ‘어나더 이어’, 자비에 보브와 감독의 ‘오브 갓즈 앤 멘’들과 황금종려상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다.

칸영화제의 소식지 ‘스크린’은 평점 2.7점(4점 만점)을 줬고, 필름 프랑세즈도 2.4점을 줬다. 또한 해외언론들도



‘시’의 공식상영회가 끝나자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는 관객들.

‘시’를 “황금종려상감”이라고 칭찬했다.

AFP 통신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10대의 성폭행과 시의 조합이 냉담한 비평가들을 홀리며 칸 영화제를 뒤흔들어 놓았고, 황금종려상을 노리는 아시아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며 황금종려상의 유력한 후보로 지목했다.



칸(프랑스) | 김원경 기자

19일 오후 기자 시사회에서 만난 프랑스 일간지 파리지엔의 마리 사비용 기자도 “매우 훌륭한 작품이다. 슬프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윤정희의 관록 있는 연기가 인상 깊었다”고 평했다.

‘시’는 개막 전부터 유력한 수상후보작이었다. 작품을 미리 본 티에리 프레

모 집행위원장이 크게 칭찬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20일 공식 상영회에는 팀 버튼 심사위원장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시’를 통해 16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윤정희도 큰 주목을 받았다. 20일 공식 상영회 직전 한복을 입고 레드카펫을 밟아 플래시 세례를 받았던 윤정희는 로이터통신으로부터 “칸을 통해 강력한 복귀를 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감독은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 영화에 16년 만에 컴백하는 ‘한국 영화계의 대모’ 윤정희를 주연으로 캐스팅함으로써 영화를 한 차원 높은 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창동 감독과 윤정희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외신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한 후 21일 밤 파리로 돌아갈 예정이다.



김원경 기자의 칸 트위터

김원경 기자의 칸 트위터는 독자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칸 영화제에 대해 궁금한 것은 트위터(@ziodady)로 물어보세요(취재를 하다 보니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샘의 유창한 불어…뽀 잤습니다”

● 칸 레드카펫에 올라 퍼진 트로트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윤정희 샘의 고운 한복에 유창한 불어도 괜히 기분 좋게만 들더군요. 거기에 관객들이 보내는 따뜻한 박수 소리까지. 칸에 와서 처음 느끼

는 포근함입니다. (5/20 PM 5:28)

● 참! 칸의 트로트는 최유나 버전의 와인글라스란 노래인데, 영화에서 윤정희 샘이 돈 꾸러 노래방에 갔다가 주인을 기

다리며 한 곡조 뽐습니다. 이 노래 웬지 히트예감입니다. ㅋㅋ. (5/20 PM 5:30)

● 제가 영어에 능통하진 않지만 좀 아쉬웠습니다. 시작표현이 부족했던 듯. 그냥 번역한 느낌이었습니. RT @OOO OO 기자님, 혹시 영화를 보시면서 ‘시’의 미묘한 의미가 자막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5/20 PM 5:45)

김남길 오연수 vs 소지섭 김하늘 수목극 ‘베드신 대결’ 앳 뜨거워!

‘나쁜남자’·‘로드 넘버원’
노동일은 연기 관심집중

‘눈에는 눈, 베드신엔 베드신!’ 새롭게 시작하는 수목드라마 2편이 ‘베드신 맞불작전’을 벌인다.

한 쪽에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남녀의 불륜’이, 다른 작품에서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격정적인 베드신이 등장한다.

26일부터 방송하는 SBS ‘나쁜남자’(극본 김재은·연출 이형민)의 주인공 김남길과 오연수가 먼저 파격적인 사랑을 공개한다. 치정 멜로드라마인 ‘나쁜남자’에서 김남길은 원하는 것을 가지려 온 몸을 내던지고, 정략결혼을 한 오연수 역시 김남길을 만나면서 격정적인 사랑에 빠져들게 된다.

최근 제작발표회에서 만난 김남길은 “촬영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수위 높은 베드신이 예정되어 있어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갈지 제작진이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연수는 “재벌가의 큰 딸이지만 나쁜 남자에게 빠져서 아이와 가정을 모두 버리는 인물이라 오해할까 걱정”이라며 “영화와 달리 TV의 한계가 있지만 그 수위를 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격정적인 사랑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넘버원’에서 소지섭과 김하늘이 뜨거운 베드신을 연기하고 있다. 사진출처 | MBC 화면 캡처

그런가 하면 소지섭·김하늘 커플은 ‘격한’ 베드신을 먼저 촬영했다. 소지섭과 김하늘은 6월 23일부터 방송하는 MBC ‘로드넘버원’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남녀 간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휴먼 멜로드라마인 ‘로드 넘버원’에서 김하늘은 데뷔 후 처음으로 상반신 누드까지 선보였다.

김하늘은 “노출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멜로인데도 이렇게 액션처럼 격렬한 베드신은 처음이다. 촬영을 마친 후에 온몸에 멍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소지섭 역시 “격하게 장면을 촬영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많이 놀랄 것 같다. 하지만 야하기보다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예능군단 “광고도 함께 찍어요”

‘천하무적’… ‘남격’ 등 멤버들
단체 CF…수익금 기부활동도

‘예능만 같이 하나? 우리는 광고도 같이 한다!’

안방을 점령한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군단이 광고 시장을 점령하고 나섰다.

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뽐낼 뭉친 KBS 2TV ‘천하무적 야구단’ 멤버들은 최근 광고 촬영을 마쳤다. 멤버들이 함께 출연한 광고는 바로 라면. 이들은 광고 수익 일부를 ‘꿈의 구장’ 건립과 유소년 야구단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천하무적 야구단’ 관계자는 “오지호는 현재 다른 라면 브랜드 모델이어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김창렬, 이하늘, 박재훈, 마리오 등 그 외 멤버들이 촬영에 함께 했다. 광고에서도 야구단 복장으로 출연했다”고 전했다.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멤버들은 현재 삼성증권의 자산 관리 브랜드인 POP 캠페인

모델로 활약 중이다. 이경규, 김태원, 김국진, 김성민, 이정진, 이윤석, 윤형민 등 출연자들은 물론 촬영 스태프까지 광고 속에 등장해 마치 실제 방송을 보는 느낌을 준다.

삼성 증권 관계자는 “예능에서 보여준 친근함과 파급력을 주무기로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필요성과 이용 방법 등을 소개하는 콘셉트”라며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MBC ‘세바퀴’의 아줌마군단 선우용녀, 이경실, 박미선, 임예진, 김지선 등도 나란히 화장품 광고에 출연했다. 다섯 명은 코스메틱 브랜드 슈에무라의 클렌징 오일의 광고 모델로 아줌마들의 피부 관리법을 전수하고 나섰다.

이 밖에도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과 ‘무한도전’ 멤버들은 지난해 각각 대형마트와 치킨 광고에 단체로 출연해 화제가 됐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잇 북

●블루문파크(조남호 지음, 블루문파크 펴냄, 1만2000원)

영화 ‘흑심모녀’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조남호 감독이 ‘흑심모녀’와 ‘미인도’ 등의 프로듀서로 참여한 조윤정 씨와 손잡고 펴낸 판타지 소설. 신비의 놀이공원 ‘블루문파크’가 사할 동안 지상에 문을 열면서 벌어지는 모험담을 그렸다. 소년 한비가 지하세계의 공포제국과 왕에 맞서 벌이는 치열한 전투가 그림 듯한 삽화와 함께 펼쳐진다. 영화화 등 ‘웬 소스 멀티 유스’를 목표로 한 첫 발걸음의 작품이기도 하다.

●쉬운 여자(박성경 지음, 휴먼앤북스 펴냄, 1만원)

불인클릭의 간호사가 자신의 불행과 불운, 불륜 등 ‘불(不)’자가 붙는 것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부탁이든 들어주는 ‘쉬운 여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세상에 내어놓는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이 얹히고설켜며 드러내는 욕망의 이야기가 시종 유머러스한 문체 속에 녹아들었다. ‘S다이아리’와 ‘소년, 천국에 가다’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이다. 그만큼 영화적 감수성도 한껏 묻어났다.

윤여수 기자 ladada@donga.com

서우, CF 봇물…‘신데렐라 언니’ 덕봤네

맥주 화장품 유제품 등 광고 잇따라
드라마 20%대 인기…최대 수혜자로

출연한 드라마의 인기는 연기자도 광고 계약을 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서우는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 인기로 힘입어 최근 3개의 브랜드와 모델 계약을 맺었다.

KBS 2TV 수목드라마 ‘신데렐라 언니’(극본 김명조·연출 김규완)는 시청률 20%를 넘어서며 순항 중이다. 주인공 호선을 맡은 서우는 매회 보여주는 눈물 연기가 인기를 모으며 광고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그녀가 광고모델로 발탁된 제품은 맥주와 화장품, 유제품까지 장르도 다양하다. 3개 브랜드 모두 ‘신데렐라 언니’가 방송된 이후 계약을 맺었다.

출연에 앞서 모델로 일찌감치 발탁됐던 속옷까지 합하면 총 4개 제품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신데렐라 언니’에는 서우를 포함해 문근영과 천정명, 옥택연까지 4명의 스타가 출연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드라마 방송 이후 광고계약을 맺은 것을 따지면 서우가 가장 많다.

소속사 관계자는 “함께 출연 중인 문근영 씨 등은 오랫동안 인기 광고모델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전체 광고 수를 비교하면 서우가 떨어진다”면서도 “그러나 드라마의

수혜를 받아 광고 계약을 가장 많이 이룬 사람은 서우”라고 말했다.

계약을 맺은 3개 브랜드 외에도 현재 광고모델 제의를 받은 제품은 현재 2~3개가 더 있다. 광고주 측과 구체적인 조항을 마무리 짓는 대로 계약서에 사인을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우는 ‘신데렐라 언니’ 인기와 더불어 영화 ‘하녀’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서우가 도발적인 입산부 연기를 펼친 ‘하녀’는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의 프리미어를 얻어 개봉 6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편집 | 만성기 기자 min3654@donga.com



‘신데렐라 언니’로 CF계의 신데렐라로 등극한 서우의 CF 한 장면.